

21세기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에서 윈윈 전략으로, 폐쇄성에서 투명 경영으로, 이기적 경쟁에서 이타적 협업으로, 엘리트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한 분산 에너지로, 석유 지정학을 둘러싼 패권주의에서 에너지 협력 관계로,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즉 협업의 경제 체제에 동승한 개인, 기업,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1911~2004년)은 미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등장한 최고의 소통과 공감의 지도자였다. 대통령에 오른 1981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2.5%에 달했고, 실업률은 7.5%였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외친 케인스주의는 오일쇼크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사회는 베트남 전쟁의 상처로 비틀거렸다.

‘공감’과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대선 주자로 나선 레이건과 미국민의 첫 소통은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Are you better off now than you were four years ago?)라는 질문이었다. 그가 지미 카터 대통령과의 대선 TV토론에서 던진 이 질문은 국민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다.

이에 국민들은 신발 세일즈맨의 아들로 태어난 B급 영화배우였던 69세의 레이건을 백악관으로 보냈다. 취임 초 레이건은 100일 동안 49차례에 걸쳐 의원 467명을 만나며 정치인들과도 소통과 공감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금도 ‘옳은 일은 결국 언제나 승리한다’는 묘비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공감과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다양한 예시도 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상사의 배려를 돈이나 그 밖의 혜택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직장 내 생산성이 정서적으로 동료에 대한 긍정적 느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이제 개인의 자율성과 기회를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물질적 이익을 강조한 ‘아메리칸 드림’ 시대에서, 개인의 창의력과 경제적 기회를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문제에도 같은 비중을 두는 ‘유러피언 드림’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이 저술한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서로 적인 군인들이 트리에 불을 붙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장을 표현한 부분이 있다. 서로 적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캐럴을 부르고 담배와 비스킷을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급과 국가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인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는 모두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인 ‘공감’과 ‘소통’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공감’과 ‘소통’은 외형적 엔트로피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매개체인 것이다.

인간이 가진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아닐까? 환경 문제 또한 인간과 자연이 공감과 소통의 확장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 방영된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북극의 눈물>에서 발 디딜 곳이 없어 차가운 얼음 바다를 하염없이 헤엄치는 북극곰의 모습. 사실, 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기’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발전소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기’ 자체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에너지이지만 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료가 현재 환경문제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분별한 화석연료 활용을 줄이고 다른 대체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무분별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가정에서 이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놓기만 해도 전력사용량의 약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1kWh는 스마트폰 100대를 충전할 수 있고, 운동에너지로 환산하면 860Kcal로 성인 남자가 90분 이상 달려야 소모되는 양이며, 일의 양으로 환산하면 3,600KJ로 이론적으로 경차를 에펠탑 꼭대기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이다.

만약 전국의 모든 가정이 하루에 1kWh의 전기절약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소통하면 매일 원자력 발전소 17기가 1시간동안 생산하는 것과 같은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보편적 소통과 공감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사회적 문제 해결책으로서 갖는 그 의미나 역할이 새삼 느껴지는 점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공감과 소통 방법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나 본질의 의미에서 이런 보편적 공감과 소통의 확장은 사회적 교류와 인프라 구축의 활용도를 배가시키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간 인식의 정착제인 셈이다. 